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Newsletter

CONTENTS

01 한국사회학 부회장 인사말
03 〈The New Normal in Post Pandemic East Asia〉 성료 보고
05 한국일보·한국사회학회 공동 연중기획 〈탈진실시대, 보수-진보를 넘어〉 좌담회 성료 보고
07 출판활동
10 회원동정
11 언론보도
15 행사보고 및 기타공지

발 행 처 | 사단법인 한국사회학회
발 행 일 | 2021년 7월 29일
전 화 | 02-722-8747
팩 스 | 02-722-8746
홈 페 이 지 | http://www.ksa21.or.kr
이 메 일 | ksa8747@hanmail.net
발 행 인 | 장원호
편 집 인 | 정고운
사 무 국 장 | 이원영

부회장 인사말

한국사회학회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여전히 인해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시길 기원합니다.

사회학회 회장단은 최근 한국 사회를 둘러싼 변화와 사회학회가 처한 상황에 관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AI와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변화에 따라 한국사회학회의 시대적 소명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학이라는 학문과 한국사회학회의 내부와 외부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학회가 파편화, 분절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학회에서 회원들 사이에 깊은 교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각 전문 분야에서 개별적인 논문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회학이 전문 학문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사회적 수요나 일반시민으로부터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그간 사회학회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먼저, 학문공동체로서의 한국사회학회의 모습을 되찾고자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공감식탁' 사업을 통해 그동안 못 만났던 회원님들이 식사를 함께 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와 사회학적 관심사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학회 회원들 사이에 심층적인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밑바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시민과 소통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하였습니다. 첫째, 한국일보와 공동으로 '탈진실 시대, 보수-진보를 넘어'를 기획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진영 논리로 진실의 실체가 흐려지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를 명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3월 24일 좌담회를 시작으로 연중기획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공정성, 지속가능성의 조건'을 주제로 공정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둘러싼 각종 쟁점에 대해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셋째, 뉴노멀포럼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쟁점을 적극적으로 다루려고 노력하였습니다. 4월 달에는 제1회 뉴노멀 포럼 〈백신의 과학과 포스트 코로나〉를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사회복지학회와 공동주관하여 코로나19를 둘러싼 쟁점도 적극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포럼에서 감염병을 연구하는 수리과학자와 의학자, 그리고 인문사회과학자가 백신을 둘러싼 다양한 측면을 각자의 학문적 시각을 공유하였습니다. 제2회 뉴노멀 포럼 〈인구절벽 쓰나미가 온다〉에서는 MZ세대의 코로나 일상과 세대갈등 문제를, 제3회 뉴노멀 포럼 〈세대교체의 정치학〉에서는 청년 정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앞으로 사회학회는 연중행사 이외에도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중요한 쟁점들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전망하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사회학회 정기 학술대회와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학회의 활동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이 명 진 드림

〈The New Normal in Post Pandemic East Asia〉 성료 보고

이원재(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한국사회학회는 동아시아사회학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함께 지난 6월 25일 〈The New Normal in Post Pandemic East Asia〉 국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한, 중, 일 동아시아 삼국의 학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였으며 각국의 코로나 관련 연구를 공유하면서 코로나 이후 동아시아 사회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행사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오전 9시반부터 6시 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발표자와 토론자, 일부의 참여자는 현장에 있고, 행사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였습니다. 동아시아 사회학회 정일준 교수(고려대 사회학과)의 사회로 식전행사가 시작되어 장원호 사회학회장, 임현진 동아시아 사회학회장, 조대엽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과 축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세미나는 총 4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장덕진(서울대 사회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는 "코로나19 시대의 여성고용의 쟁점"이라는 제목 하에, '돌봄과 환경 파괴, 거시경제적 결과의 삼중적 상호착종적 위기(a trio of interlocking crises)'로 코로나19 시대를 바라보는 페미니스트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한국 사회에서 팬데믹 이후 여성들에게 배가된 위기와 부담을 지적하였습니다.

리춘링(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에서 주택에 기초한 자산축적"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소득보다 주택이 계층 분화의 더 큰 원인이 되는 중국의 특성을 소개하였습니다. 저우야핑과 왕샤오링(랑조우 대학교)은 210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거버넌스를 분석하였습니다. 비록 자본이라는 요인이 어느 국가에서나 성장에서 공통적으로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인구, 고용률, 거주환경, 과학과 기술, 금융시장과 운송 연결망 등이 서로 다른 성장 경로를 낳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장하이동(상하이대)의 사회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 미츠카이 데츠오(리쿄대)는 일본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하에서 중국인 공동체가 받았던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총 세 번의 비상사태가 중국인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각기 달랐는데, 횟수가 더해질수록 방문자수가 회복되었으나 어린 학생들의 정서적 우울감이 증가했다는 발견을 소개했습니다.

황선재(충남대)는 최근 출판한 두 개의 연구 논문을 종합하여, 코로나19 이후 한국에서 국가 영역에 대한 신뢰와 사회 영역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정부,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코로나19 백신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습니다. 야오예린과 쥔안, 장하이동(상하이대)은 언론 이용이 팬데믹 극복과 관련해 정부에 대해 가지는 신뢰(반(反)팬데믹 신뢰)를 형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언론 이용시간은 정부의 능력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일준(고려대)의 사회로 진행된 세 번째 세션에서, 루펑(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에서 정부와 기업의 협치(co-governance) 구조 속에서 ABC, 즉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이 대표하는 최신의 디지털 기술이 Covid-19에 대한 대응에 어떻게 쓰이는지의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원재(카이스트)는 코로나19에 대한 16개국 국제 비교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국가와 시민사회, 미국과 중국, 사회적 신뢰에 대한 코로나19이후 여론의 국제적 차이들을 소개하고, 재난 인식과 대응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존의 경로의존적 요인들을 정리했습니다. 히로이 요시노리(교토대학)는 2017년 교토대와 히타치의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된, AI를 이용한 일본 사회의 미래 예측의 결과를 제시하며, Covid-19 사태의 발발을 위기보다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회로 인식하고 정책을 펼쳐야 함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 세션은 히로이 요시노리(교토대학)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장웬홍(상하이대학)은 사회적 자본을 거시(macro), 중범위(meso), 미시(micro)의 세 수준으로 나누고, 중국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이 세층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했는지를 소개했습니다. 양위동(난징대학)은 미국, 영국,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중국인 학생 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이방인들이 겪어야 했던 삶의 변화들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일준(고려대)은 한국 방역모델은 서구 및 동아시아 국가들과도 구별되는 특이한 성격을 지녔다고 주장했습니다. 생명정치(Biopolitics)와 안보화(Securitization) 이론을 동원하여 한국 정부가 다른 정부들과 달리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이를 공중보건위기(Public Health Crisis)가 아닌 국가안보위기(National Security Crisis)로 다루었으며, 국경봉쇄나 지역봉쇄 같은 강압적 수단이 아닌, 시민사회와의 협력 속에 시민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일보·한국사회학회 공동 연중기획 〈탈진실시대, 보수-진보를 넘어〉 좌담회 성료 보고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2021년 상반기에 한국사회학회는 한국일보와 공동기획으로 '탈진실시대, 보수-진보를 넘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2회에 걸쳐 좌담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좌담은 "'불공정사회'의 좌표"에 관해, 두 번째 좌담은 "달라진 일과 노동: 문 정부 노동정책의 현주소"에 관해 진행되었다. 좌담 내용은 한국일보에 따로 지면을 할애하여 보도되었고, 한 시간짜리 영상으로 편집되어 유튜브에 게시되었다.

첫 번째 주제인 '불공정사회'에 관해 3월 24일에 개최된 좌담에는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와 필자가 참여했으며, 공정성 연구에 오랫동안 천착해 온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이 좌담에서는 조국 전 법무장관과 나경원 의원 등 정치인들의 자녀 교육 특권·특혜 논란, 부동산 가격 폭등과 LH공사 직원 투기 사건, 정부 고위층의 고액 부동산·펀드 투자 등 한국사회를 강타했던 여러 불공정 이슈가 두루 다뤄졌다.

좌담 참여자들은 한국사회의 불평등, 부정의, 불공정 현실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평가가 최근에 갑자기 생긴 현상이 아니라 지난 십여 년 간 꾸준히 악화된 구조적 현상이며, 특히 문 정부 시기에 와서는 평등, 정의, 공정을 표방한 권력층의 이중성과 계층세습에 대한 실망과 공분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와 더불어 김정희원 교수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경쟁의 논리로 이해되는 공정성 담론이 차별의 무기가 되고 있는 면을 비판하고, 구조적인 불평등과 차별의 현실에 더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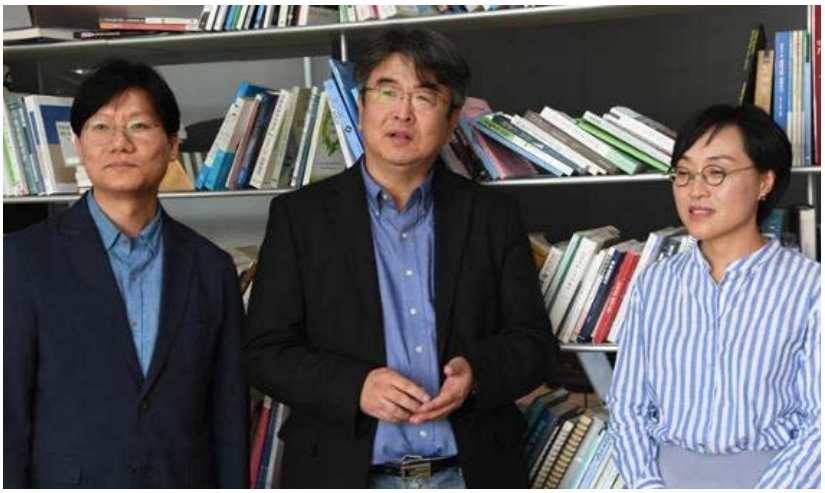
두 번째 좌담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고용 정책을 놓고 5월 24일에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와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여했고 사회자인 배영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가 대화를 인도했다.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포용복지국가,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했고, 그러한 친노동 노선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정책으로 가시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좌담 참석자들은 현 정부에 많은 비판을 가하며 변화를 촉구했다.

정흥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에서 제외했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성별 임금공시제도'는 시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 등의 여러 문제점을 예로 들었고, 권현지 교수는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밀한 실행계획이 뒤받쳐 주지 못한 것이 많은 한계를 낳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정책의 지향과 의도가 좋았더라도, 그것의 실질적인 구현과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나아가 좌담 참석자들은 문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넘어, 보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변화하는 고용·노동 현실에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의 성격과 고용 형태가 점점 더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의 법제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노동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에 대응하는 정책혁신과 제도개혁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특히 코로나19 위기의 장기화 속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양극화의 심화로 공고화되는 것을 막는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했다.

필자는 이 좌담의 기획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탈진실시대, 보수-진보를 넘어'라는 제목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문제의식에 즉각 공감했다. 보수냐 진보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하는 이념과 정견의 편향에 따라서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과 태도가 손바닥 뒤집듯 달라지는 당파적 탈진실의 현실 말이다. 이번 좌담은 그런 탈진실을 넘으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에 사회학이 기여하고자 한 하나의 시도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보수든 진보든, 어떤 가치를 진정성을 갖고 추구한다면 우리가 직면한 여러 사회현실에 대해 일관성 있는 가치합리적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타인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기본이 상실된 곳에선 '우리 편'의 이익이 무엇이냐가 먼저고, 그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진실'의 정치적 재구성이 뒤따르게 된다. 사회에 대한 사회학적 개입은 그런 탈진실의 세계에서 배재된 세계를 공론장에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출판활동

〈한국사회학〉 2021년 제55집 2호 발간

〈한국사회학〉 2021년 제55집 2호에는 연구논문 4편, 연구단편 1편이 실렸습니다.
게재된 논문의 제목과 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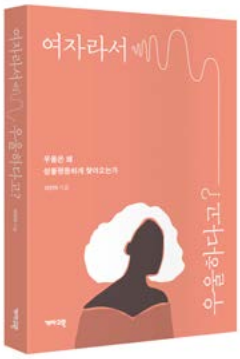
〈연구논문〉

- 정치적 억압의 전략과 법치주의 / 홍성태
-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탈도덕화
  : 공평성, 순수성 변화를 중심으로 / 김경준 이윤석
- 출신국가 및 이주국가의 정책적 특성에 따른 시민권 취득
  : 이민자의 선별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 황성식 유정균
- 게임산업 CSR의 다양한 경로
  : 국가별 제도 환경과 사회문화의 영향력 / 김대욱 이은정 구정우

〈연구단편〉

- 사회문제 간 우선순위 파악을 위한 쌍대비교 선택형 응답 실험 / 임정재 조지연 강정한

『여자라서 우울하다고? 우울은 왜 성불평등하게 찾아오는가?』 이민아



여성의 우울증, 불안장애 유병률은 일반적으로 남성의 2배가 넘는다. 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우울한가? 지금까지 여성은 생래적으로, 심리적으로 더 쉽게 우울해하는 존재이기에 정신건강의 성별격차는 당연하거나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여성의 우울은 뇌, 호르몬의 차이 등 생물학적 원인, 인지조절능력, 성격특성 등의 심리적 원인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이러한 접근은 우울을 여성의 본질적인 특성이자 개인의 문제로 환원한다. 이 책은 정신건강에 대한 뇌과학, 심리학적 접근을 비판하고 성별 정신건강 불평등을 유발하는 사회적 원인을 분석한다. 여성의 우울은 사회문화적 근본원인, 젠더화된 생애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설명되지 않으며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성별 정신건강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처방의 길을 모색한다.

목 차

〈1부 여성의 정신건강이 위험하다〉
1장 건강과 질병은 운명이 아니다
2장 여성의 정신건강이 위험하다
〈2부 여성은 더 우울하게 태어났을까〉
1장 뇌와 호르몬으로 설명하기
2장 심리적 특성으로 설명하기
3장 우울의 진짜 원인을 찾아서
4장 여성으로 살아가기: 성별화된 생애과정
〈3부 무엇이 여성을 더 우울하게 만드는가〉
1장 여성에게 관계는 축복인가 굴레인가
2장 낮은 지위와 자원이 스트레스를 부른다
3장 맘충 아니면 슈퍼맘
4장 좋은 엄마 되기: 불가능한 임무
5장 평생 끝나지 않은 노동: 여성에게는 은퇴가 없다
6장 위협받는 여성, 일상이 된 두려움
7장 청년여성이 우울한 이유
〈4부 성평등한 세상, 성평등한 마음〉
1장 우울증을 고치는 기적의 약은 없다
2장 심리치료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
3장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처방

『공정한 사회의 길을 묻다』 이한주, 오재호 기획, 김석호 외 지음



공정성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존재하지만, 각자 사용하는 개념은 자의적이며 자기 이해 관계에 따른 아전인수식 해석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층위에서 공정성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은 공정성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공정성은 또한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매우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문제이다. 수많은 이들이 불공정성을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책은 불공정성으로 야기된 문제점들을 관찰하고 드러냄으로써 공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국가 단위를 비롯해 교육, 성별, 계층, 의료, 이주민, 노동, 행복 추구 등의 측면에서 불공정성 문제를 파악하고, 공정성을 실현할 유기적 방안을 모색한다. 공정성에 대한 총체적 이해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목 차

제1장 뉴노멀과 공정성: 다시 돌고 돌아 공정성
제2장 공정성과 인간 본성
제3장 공정성의 사회적 의미
제4장 공정성과 국가의 역할
제5장 한국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공정성을 허물고 있나?
제6장 공정성: 능력주의와 기회 불평등 사이의 흔들림
제7장 90년대생 남자와 여자는 왜 불공정을 이야기하나?
제8장 일상이 된 코로나19, 우리는 공정한 의료를 누리고 있나?
제9장 이주민에게도 공정한 사회인가?
제10장 인공지능은 즐거운 노동을 가능하게 할까?
제11장 공정성은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나?
제12장 공정성, 지속가능성장의 조건

참고문헌

박사학위논문 소식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에 의한 경계 긋기와 새로운 실천 과제 -행위적 실재론을 중심으로-

장지은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본 연구는 이원화된 젠더 범주로 트랜스젠더의 신체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데 주목했다. 2020년 숙명여자대학교 트랜스젠더 학생의 입학 포기, 변 전 하사가 성전환 수술 후 심신장애 3급으로 강제 전역을 당한 사건은 트랜스젠더의 신체를 문제시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동안 트랜스젠더는 사회가 규정한 젠더 규범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하는 신체 불화를 성주체성장애로 진단하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간주해왔다.

그래서 본 연구는 트랜스젠더의 신체 불화를 신체의 능동적인 요구로 바라보고 바라드의 행위적 실재론을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연구의 분석틀로 사용한 이유는 행위적 실재론은 고정된 젠더나 규범이 없고, 미결정적인 상태에서 행위적 절단을 통해 구성원들의 행위로 경계가 형성되고 인과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한다. 연구에는 12명의 주요 연구 참여자와 3명의 보조 연구 참여자가 참여하여 면접조사로 진행이 되었다. 면접 조사 결과, 참여자들의 트랜지션 행위에 따라 네 가지 유형(가족과 지인관계, 커뮤니티, 성형 수술 시장, 미디어)과 사회 제도(학교, 군대, 성별 정정제도, 노동 시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에 대한 경계가 형성되었다.

본 연구 결과, 행위적 실재론은 고정된 정체성과 젠더가 미결정적인 상태이므로, 행위와 사회적 맥락에 따라 '정체성에서 정체화로 읽기' 와 '성차에서 성의 차이짓기'로 인식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다양한 신체와 젠더를 가진 트랜스젠더의 '차이' 를 인정하고 구성원들의 판단능력과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아고니즘 정치 실천' 에 주목했다. 아고니즘 정치는 보다 미분적인 차이들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와 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해서 한국 사회에 유의미한 실천 전략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신체 불화를 신체의 능동적 요구로 바라보고, 바라드가 제시한 물질적-담론적 실천으로 신체와 담론은 서로 얽혀서 작용하는 것임을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에 의해 형성되는 경계 과정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있다. 그리고 바라드의 행위적 실재론으로 담론 형성을 분석하는 것 뿐 아니라 담론 형성 과정을 포착하고, 행위와 사회적 맥락으로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또한 사회학에서 이원화된 젠더 범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젠더와 성적지향을 공론화 할 필요가 있음을 연구를 통해 보여주었다. 앞으로 트랜스젠더의 신체 불화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현상이 더 많이 연구되길 기대한다.

회원동정

부고

-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구혜란 박사 모친상: 2021년 4월 9일 별세
- 한양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학과 안병철 명예교수 모친상: 2021년 4월 18일 별세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최현 교수 부친상: 2021년 5월 1일 별세
- 국회미래연구원 이상직 부연구위원 빙부상: 2021년 5월 14일 별세
-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신형진 교수 부친상: 2021년 6월 3일 별세

신입회원 (가나다순 - 총 7명)

- 김미영 –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 김수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조교수
- 김효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송효종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 이준엽 –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 임대영 – 서울시립대학교 석사과정
- 임미혜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언론보도

제1회 뉴노멀 포럼 〈백신의 과학과 포스트 코로나〉 개최

• 중앙일보

"효능보다 속도"...수학으로 본 백신 정책 논의한 뉴노멀포럼

[중앙일보] 입력 2021.04.29 18:39



29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에서 '백신의 과학과 포스트 코로나' 포럼이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감염병연구팀의 손우식 박사가 발표하고 있다. 이가람 기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감염재생산지수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감염병연구팀의 손우식 박사는 29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백신의 과학과 포스트 코로나'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사람수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손 박사는 "감염재생산지수는 1을 기준으로 앞으로도 증가와 감소 패턴을 반복할 것이다"며 "집단면역이 달성되기 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팬데믹 이후 한국사회 뉴노멀 현상과 대응'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감염병을 연구하는 수리과학자, 의학자, 인문사회과학자들이 여러 학문적 시각에서 백신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한국복잡계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복지학회가 공동주관했다.

▲ 자료: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article/24047170)

제2회 뉴노멀 포럼 〈인구절벽 쓰나미가 온다: 세대 갈등의 서막〉 개최

• 중앙일보

중앙일보

"초저출산, 청년의 생존본능" 인구절벽 쓰나미 진짜 해법은?

[중앙일보] 입력 2021.05.25 05:00



24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2회 뉴노멀 포럼' 포스터

4년간의 수험생활 끝에 서울시 7급 공무원에 합격해 올해 처음 출근한 이모(29)씨는 최근 '인생 설계'에 대한 고민이 크다. 자신을 '캥거루족'(부모에게 의존하는 2030세대)이라 설명한 이씨는 "그토록 원했던 취업에 성공해도 미래가 막막한 건 달라지지 않았다"며 "아무리 월급을 모아도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 얘기를 접할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 자료: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article/24065675)

제3회 뉴노멀 포럼 〈세대교체의 정치학: 청년정치의 기회와 한계〉 개최

• 중앙일보

중앙일보 인쇄하기 취소

"이준석 진짜 팬은 20대 아닌 60대" 이준석 돌풍 진짜 원인

[중앙일보] 입력 2021.06.23 17:47 수정 2021.06.23 18:25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국회 국민의힘 당 대표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준석 돌풍의 원인은 안티페미니즘도, 이대남의 결속도 아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30대 당 대표를 만들어낸 '이준석 돌풍'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3회 뉴노멀 포럼'에서는 기존의 해석과 다른 새로운 분석이 제시됐다.

청년정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은 "그동안 많은 언론이 이 대표의 당선 결과를 20대 남성의 지지와 젠더 이슈로 해석했지만, 여론조사로 드러난 실증적인 근거는 이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현상을 분석하고자 고려대불평등과민주주의연구센터와 한국리서치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3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 자료: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article/24089369)

탈진실시대, 보수-진보를 넘어
〈달라진 일과 노동: 문 정부 노동정책의 현주소〉 좌담회 개최

• 한국일보

탈진실시대, 보수-진보를 넘어

"文 정부 노동 정책, 설익고 세밀하지 못했다"

입력 2021-06-01 04:30 수정 2021.06.01 18:30



한국일보-한국사회학회 공동 연중기획 '탈진실시대, 보수-진보를 넘어' 좌담회 참석자들이 서울 중구 한국일보 사옥에 모여 있다. 왼쪽부터 정홍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배영 포항공과대학 교수, 권현지 서울대 교수, 고영권 기자

▲ 자료: 한국일보(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2720470004455,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2720540000455)

행사보고 및 기타공지

학술행사 보고

한국일보·한국사회학회 공동 연중기획 〈탈진실시대, 보수-진보를 넘어〉 좌담회

1회 '불공정 사회'의 좌표

2회 달라진 일과 노동: 문 정부 노동정책의 현주소

- 일시: 2021. 03. 24. / 2021. 05. 24.
- 장소: 한국일보
- 주최: 한국일보, 한국사회학회

제1회 뉴노멀 포럼 〈백신의 과학과 포스트 코로나〉

- 일시: 2021년 4월 29일 (목) 오후 2시~4시
- 주관: 사단법인 한국복잡계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공동개최: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제2회 뉴노멀 포럼 〈인구절벽 쓰나미가 온다: 세대 갈등의 서막〉

- 일시: 2021년 5월 24일 (월) 오후 2시 30분~5시
- 주관: 사단법인 한국사회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공동개최: 한국복잡계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제3회 뉴노멀 포럼 〈세대교체의 정치학: 청년정치의 기회와 한계〉

- 일시: 2021년 6월 22일 (화) 오후 2시~5시
- 주관: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공동개최: 한국사회학회, 한국복잡계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The New Normal in Post Pandemic East Asia〉 학술심포지엄

- 주제: The New Normal in Post Pandemic East Asia
- 일시: 2021년 6월 25일(금) 09:30-18:00
-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220호)
- 주최: 한국사회학회, 정책기획위원회, 동아시아 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기업가정신학회 상호협력 MOU 체결식 및 공동세미나

- 일시: 2021년 7월 5일 (월) 오전 11시 00분~12시30분
- 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미래관 11층 (경영대학)

제24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인구학회 공동주최 인구포럼

- 주제: 코로나19 시기 인구변동과 정책적 함의
- 일시: 2021년 5월 13일(목) 14:00~17:00
- 장소: 유투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채널
- 주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인구학회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2021 국제 돌봄정책 컨퍼런스〉

- 주제: 코로나19와 돌봄경제: 지속가능한 돌봄사회로의 전환 (The Care Economy in Korea: Beyond Covid-19 and Towards a Sustainable Caring Society)
- 일시: 2021.6.2(수) - 4(금)
- 장소: 온라인 (Zoom) 언어: 한국어 & 영어 (동시통역 제공)
- 주최: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불평등연구회 제8회 심포지엄

- 일시: 2021년 7월 2일(금) ~ 3일(토)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

2021 동아시아종교사회학회(EASSSR) 연례 학술대회

- 주제: Religion and Peace in East Asia: The Roles of Religion in Times of Crises
- 일시: 2021년 7월 17일-19일
- 장소: 제주대학교(Online meeting)
- 주최: 동아시아종교사회학회(EASSSR)

학술행사 안내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일시: 2021년 9월 30일(목)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생중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4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 일시: 2021년 11월 19일(금)
- 장소: 비대면화상회의 및 온라인 중계방식 예정

행사보고 및 기타공지

2021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 일시: 2021년 10월 29일(금)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 데이터 설명회 및 패널분석방법론 워크숍: 2021년 7월 30일(금), 대한상공회의소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 주제: 데이터 혁신과 국가통계의 도약(Data Innovation and the Leap of Official Statistics)
- 일시: 2021. 9. 29.(수) ~ 30.(목)
- 장소: 대전 통계센터

한국이민학회-전남대학교 국제이주와 디아스포라 혁신인재교육연구단 및 글로벌 디아스포라 연구소 공동 학술대회

- 주제: 도래하는 이주의 시대, 맞이하는 미래
- 일시: 2021년 7월 30일(금)
- 장소: 온라인 화상 회의
- 주최 : 한국이민학회-전남대학교 국제이주와 디아스포라 혁신인재교육연구단 및 글로벌 디아스포라 연구소

학술지 원고모집

이화 〈사회과학연구논총〉 제37권 2호 원고모집 안내

- 발간예정일: 2021년 10월 31일
- 접수마감일: 2021년 8월 30일
- 원고 제출: 이메일(ejss@ewha.ac.kr), jss.jams.or.kr 직접 투고
- 문의: (02)3277-2278 / ejss@ewha.ac.kr

뉴스레터 공지 이용 안내

(뉴스레터에 회원 여러분의 최근 활동(저서출간, 보직, 안식년, 출장 등)과 변동사항(주소, 전화번호, 직위 등)을 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학술대회, 학과 활동 등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사)한국사회학회 사무실(Tel: 02-722-8747, Fax: 02-722-8746,E-mail: ksa8747@hanmail.net)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회학회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